중3 역사② · IV-4 왜란·호란의 발발과 영향

왜란과 호란은 조선과 동아시아를 어떻게 바꾸었을까?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겪은 뒤, 북쪽에서 성장한 후금·청의 침략도 받았습니다. 전쟁 이름을 따로 외우기보다 누가 왜 침략했는지, 조선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전쟁 뒤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연결하면 흐름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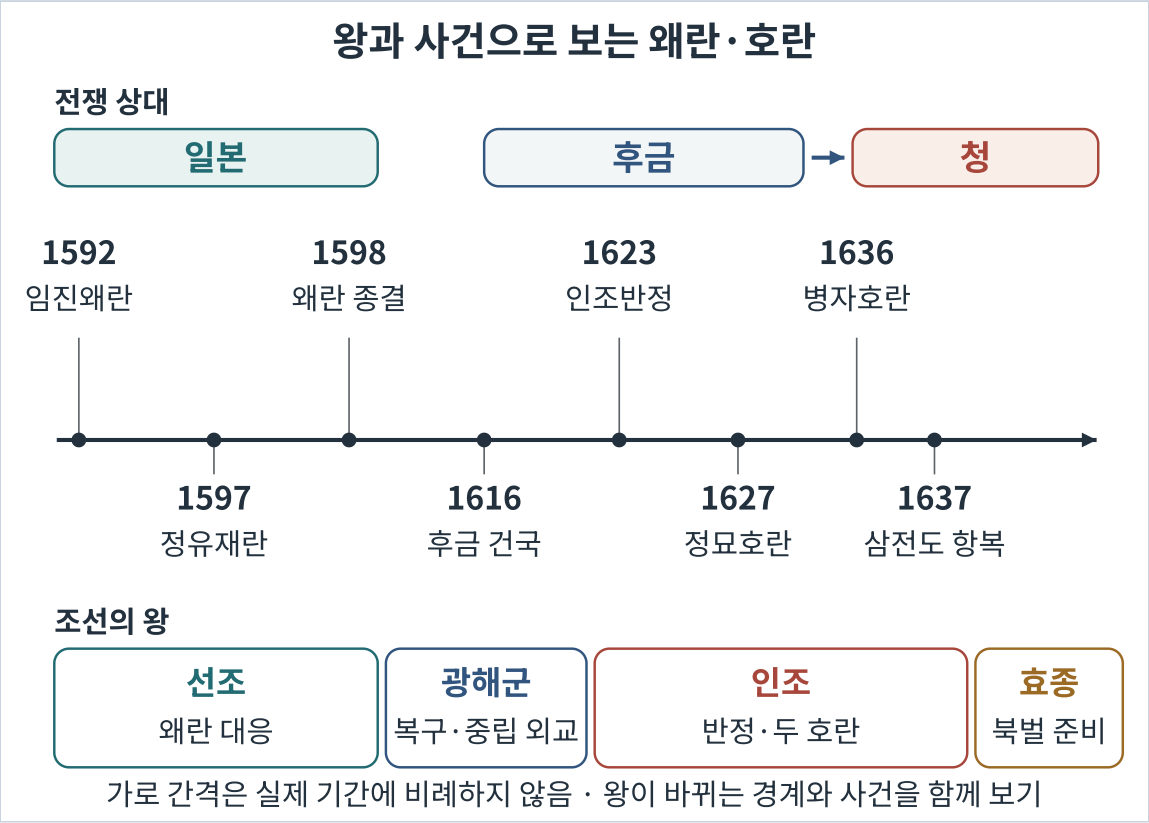


그림 1. 전쟁 상대와 사건, 당시 왕을 위아래로 연결합니다. 가로 간격은 실제 기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선조 다음에는 광해군, 인조 다음에는 효종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D00 전쟁과 외교를 보는 네 가지 질문

살펴볼 것	중심 질문	연결할 내용	해당 질문
왜란의 전개	초기 패배를 어떻게 만회했을까?	수군·의병·관군, 명의 참전, 주요 전투	Q01~Q09
왜란의 영향	전쟁이 끝난 뒤 무엇이 달라졌을까?	조선의 피해, 동아시아 정세, 일본과의 교류	Q10~Q12
광해군과 인조의 외교	같은 이웃 나라를 왜 다르게 대했을까?	전후 복구, 중립 외교, 인조반정, 친명배금	Q13~Q17
병자호란과 그 이후	싸움과 화의 사이에서 무엇을 고민했을까?	척화론·주화론, 군신 관계, 북벌론	Q18~Q22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1 일본의 침략과 조선의 대응

Q01 일본은 왜 조선을 침략했나요?

한 줄 답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국내 불만 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대륙으로 세력을 넓히려 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전국 시대	일본에서 여러 세력이 각 지역을 차지하고 싸우던 시기.
대륙 진출	여기서는 중국 대륙까지 군사적으로 세력을 넓히려는 움직임.
구실	어떤 일을 하려고 내세우는 이유.
환관	궁중에서 황제를 가까이하며 일을 맡던 관리.
왜구	당시 동아시아 바닷가를 습격하여 약탈하던 무리.

D01 전쟁 직전 세 나라와 일본의 침략

일본	명	조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함	환관의 횡포와 몽골·왜구의 침입 등으로 안팎이 혼란함	지배층의 분열과 군역 제도의 문란으로 국방력이 약해짐 → Q02

목적		구실		실제 행동
국내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대륙으로 세력을 확대하려 함	→	명을 공격하러 갈 테니 조선을 통과하게 해 달라고 요구함	→	1592년 조선을 침략함: 임진왜란

설명 일본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힘을 잃은 영주와 무사들은 불만이 컸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들의 관심을 나라 밖으로 돌리고, 혼란한 명까지 세력을 넓히려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군대가 자기 나라를 가로질러 전쟁을 하러 간다는 요구를 조선이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길을 빌려 달라'는 말은 평화로운 여행을 허락해 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구실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일본의 대외 팽창과 연결해야 합니다.

이름 풀이 '왜란'은 왜(일본)가 일으킨 난, '호란'은 호가 일으킨 난이라는 뜻입니다. '호'는 북쪽 민족을 낮추어 부르던 말로, 여기서는 여진이 세운 후금·청을 가리킵니다. '재란'은 다시 일어난 난이라는 뜻입니다. 임진(1592)·정유(1597)·정묘(1627)·병자(1636)는 각각 그해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정유재란'은 정유년에 일본이 다시 침략한 전쟁입니다.

★ 시험 포인트 '일본 통일·대륙 침략'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쟁 뒤 에도 막부 수립'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Q02 조선은 왜 전쟁 초기에 빠르게 밀렸나요?

한 줄 답 **지배층의 분열과 군역 제도의 문란으로 국방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일본군이 조총 등을 앞세워 빠르게 진격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군역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사 복무 등의 부담을 지는 일.

조총 화약을 이용하여 탄환을 쏘는 총.

방어선 적의 진격을 막으려고 군대를 배치한 지역이나 연결선.

피란 전쟁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 감.

선조 임진왜란 때 조선을 다스린 왕.

의주 압록강 가에 있던 북서쪽 국경 고을.

D02-가 초기에 밀린 까닭 세 가지

까닭	전쟁 준비에 미친 영향
지배층의 분열	앞 단원에서 배운 붕당 사이의 대립 등으로 정치가 혼란해짐
군역 제도의 문란	군사 복무 부담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국방력이 약해짐
일본군의 조총과 빠른 진격	조선의 방어선이 잇따라 무너짐

D02-나 초기 진격과 조선의 대응

살펴볼 흐름	순서와 대응
일본군의 진격	부산진·동래성 함락 → 충주에서 신립 패배 → 한성 점령 → 평양·함경도 방면 진출
선조와 조정의 대응	한성을 떠나 북쪽으로 피란 → 평양을 거쳐 의주로 이동; 명에 지원을 요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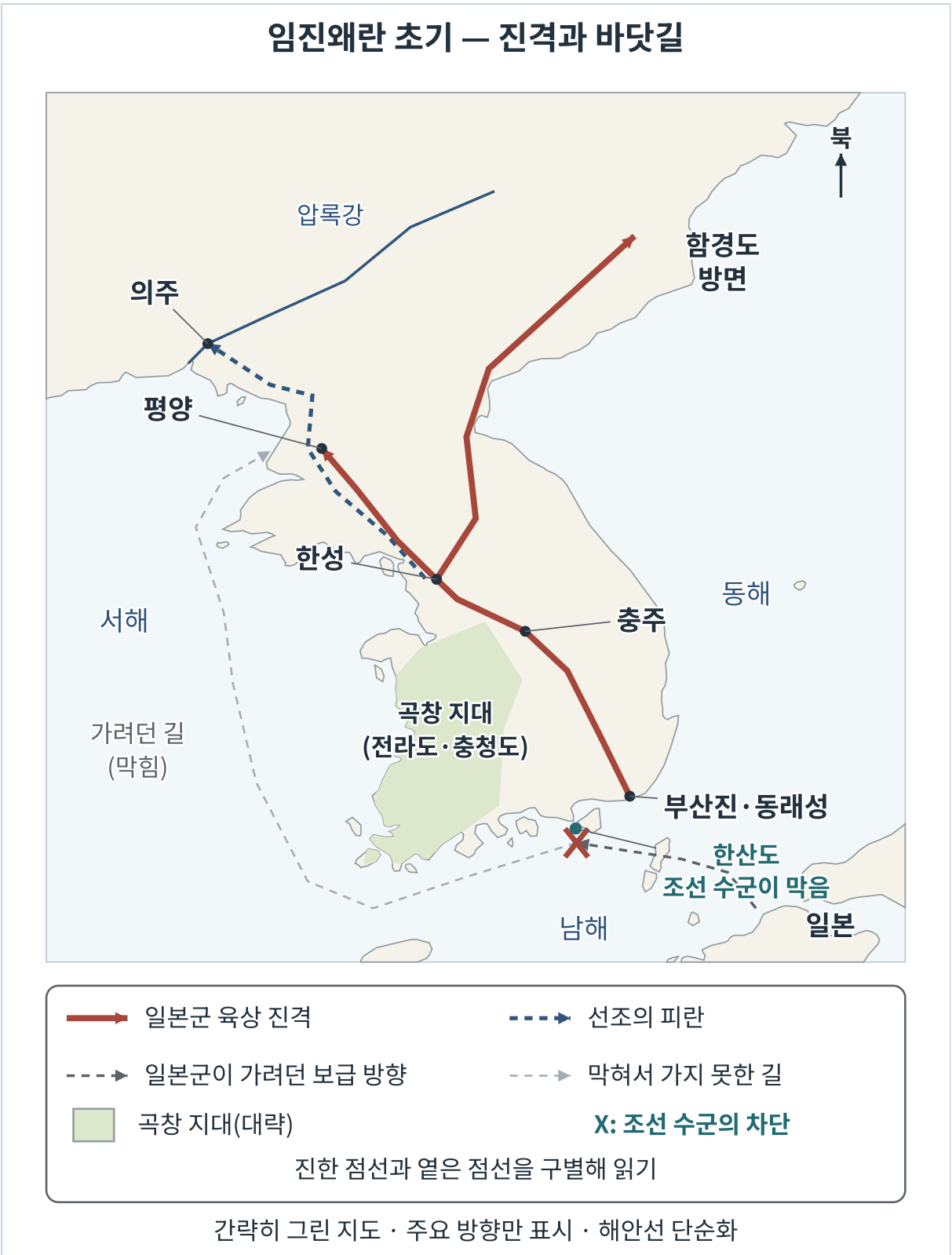


그림 2. 임진왜란 초기의 진격과 바닷길

굵은 실선은 일본군의 육상 진격, 굵은 점선은 선조의 피란 방향입니다. 바다의 진한 점선은 일본군이 한산도 쪽으로 가려던 방향이고, 차단 표시 뒤의 옅은 점선은 막혀서 가지 못한 길입니다. 음영은 전라도·충청도의 곡창 지대가 있는 대략적인 범위를 나타냅니다. 선은 주요 방향을 간략히 이은 것이며 세부 이동 경로·당시 도 경계를 복원한 지도는 아닙니다.

설명 조선군은 각지에서 저항했지만 초기의 방어가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 **시험 포인트** ‘일본의 침략 이유’와 ‘조선의 초기 패배 이유’는 다른 질문입니다. ‘충주·신립의 패배’와 ‘선조의 의주 피란’은 임진왜란 초기의 상황입니다. 남한산성의 인조와 섞지 않습니다.

Q03 수도가 함락되었는데도 왜 조선은 계속 싸울 수 있었나요?

한 줄 답 **수도 밖에도 왕실과 군대가 남아 있었고, 수군·의병·관군이 여러 지역에서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함락	방어하던 도시나 성이 적에게 넘어감.
관군	나라가 조직하고 지휘하는 군대.
전열 정비	흐트러진 군대의 조직과 싸울 준비를 다시 갖춤.

D03 한성 함락 뒤에도 이어진 대응

바다	지방	육지의 반격	외부의 지원
수군의 승리	의병과 승군의 활동	관군이 전열을 정비함	명이 지원군을 보냄

설명 수도를 빼앗기면 정치와 군사 활동에 큰 타격을 받지만, 전국의 저항이 동시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의병은 일본군의 이동과 보급을 방해했고, 수군은 바다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관군도 다시 싸울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여러 세력의 대응이 이어지면서 전쟁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 **시험 포인트** ‘수도 함락’이라는 한 사건을 ‘조선의 저항이 모두 끝남’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Q04 바다에서 이긴 것이 육지의 전쟁에 왜 도움이 되었나요?

한 줄 답 **일본군의 해상 보급을 어렵게 하고, 곡창 지대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보급	군대가 싸움을 계속하도록 식량·무기 등 필요한 물자를 공급함.
보급로	필요한 물자를 나르는 길.
제해권	일정한 바다에서 적의 활동을 막고 자기편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곡창 지대	곡식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

D04 수군의 승리에서 육지의 변화까지

수군이 한 일	직접적인 효과	육지의 전쟁에 준 영향
일본 함대를 격파하고 바닷길을 지킴	→ 일본군이 배로 물자를 나르기 어려워짐	→ 일본군이 전쟁을 계속하는 데 부담이 커짐
서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함	→ 충청도·전라도의 곡창 지대 보호에 기여함	→ 조선이 버티고 반격할 기반을 지킴

그림 다시 보기 Q02의 그림 2에서 한산도 부근의 차단 표시와 그 뒤의 옅은 점선을 확인하세요.

설명 일본군은 육군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동안 수군이 남해와 서해를 돌아 물자를 실어 나르려 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남해에서 일본 수군을 물리쳐 이 계획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군대는 적을 향해 진격하는 것만으로 전쟁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무기를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이순신이 이끈 수군의 승리는 일본군이 바다를 이용해 이동하거나 물자를 옮기는 데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 ★ **시험 포인트** '수군 승리 → 해상 보급로 차단·곡창 지대 보호 → 전세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합니다.

Q05 수군의 승리는 거북선 한 종류 덕분이었나요?

> **한 줄 답** **전선의 구조, 화포, 지휘와 훈련, 바다 지형을 활용한 전술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낯선 말

전선 전투에 사용하는 배. 이 질문에서는 전쟁의 경계선을 뜻하지 않음.

화포 화약의 힘으로 포탄 등을 쏘는 무기.

전술 실제 전투에서 병력과 무기·지형을 활용하여 싸우는 방법.

D05 수군의 승리를 설명하는 여러 조건

조건	도움이 된 점
판옥선	넓고 튼튼한 선체와 높은 전투 공간을 활용하여 싸움
거북선	덮개로 병사를 보호하며 적진을 돌파하는 데 활용함
화포	천자총통 같은 화포로 적선을 공격함
지휘·훈련·전술	적을 유인하고 지형을 이용하며 여러 배를 함께 움직임



그림 3. 판옥선의 전투 공간과 노

위쪽에서는 무기를 다루고 아래쪽에서는 노를 저을 수 있는 판옥선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상상도입니다. 당시 배의 세부 치수나 장비 배치를 복원한 설계도는 아닙니다.

설명 판옥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 전선이었습니다. 수군은 옥포를 시작으로 사천·당포 등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는 적을 넓은 바다로 유인한 뒤 배들을 학의 날개처럼 펼쳐 공격하는 학익진 전술을 활용했습니다. 좋은 배와 무기가 있어도 이를 함께 움직일 지휘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무기 이름 풀이 천자총통은 조선의 대형 화포입니다. 육지 전투에서 쓴 화약 무기로는 비격진천뢰도 있는데, 발사된 뒤 폭발하여 쇳조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름 풀이 학익진은 '학의 날개 모양으로 펼친 진', 『난중일기』는 '전쟁 중에 쓴 일기'라는 뜻으로, 이순신이 남긴 전쟁과 생활의 기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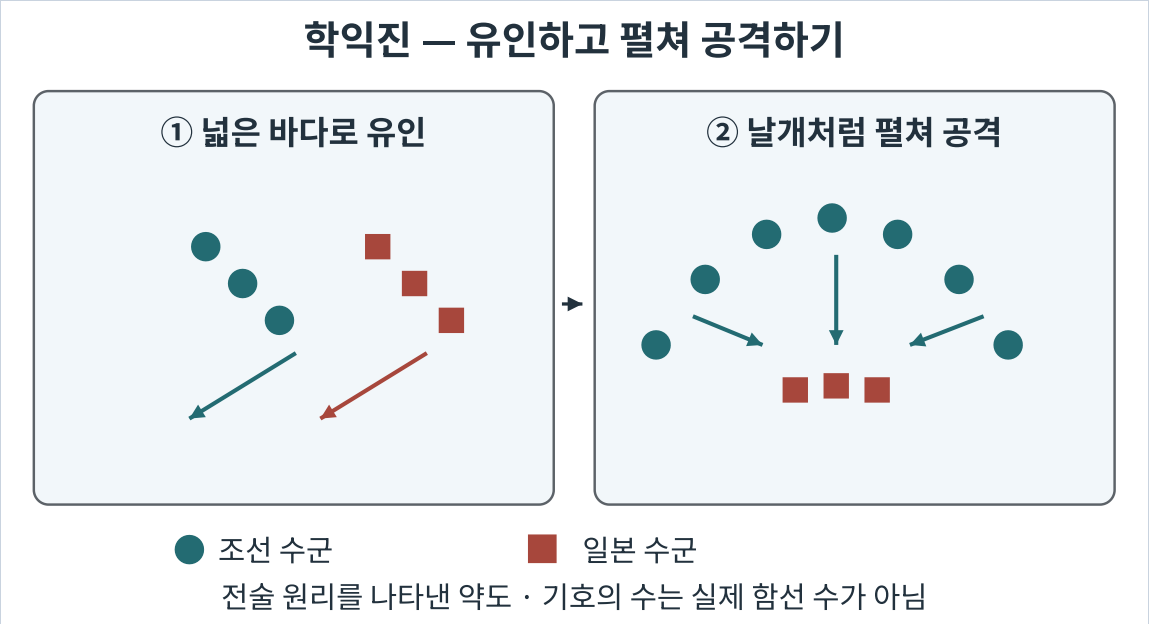


그림 4. 학익진의 움직임

① 일부 배가 적을 넓은 바다로 유인하고, ② 조선 수군이 날개처럼 펼쳐 공격하는 원리를 나타냈습니다. 기호의 수·간격은 실제 배의 수·거리를 뜻하지 않는 전술 약도입니다.

★ **시험 포인트** '주력 전선=판옥선', '돌격에 활용=거북선', '학익진=한산도'를 구별합니다.

Q06 의병은 모두 원래 군인이었던 사람들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자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유생·농민·전직 관리 등 여러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낯선 말

의병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 싸운 군대.
유생	유교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
승군	승려들로 이루어진 군대.

D06 나라의 군대와 스스로 일어난 군대

큰 갈래	세부 갈래	대표 인물	활동
나라의 군대 (관군)	육지의 군대	김시민·권율 등	성을 지키고 반격함
	바다의 군대 (수군)	이순신 등	일본군의 해상 활동을 막음
스스로 일어난 군대	의병	곽재우 등	지역 지리를 활용하여 적을 공격하고 보급로를 차단함
	승려들의 군대 (승군)	휴정(서산 대사)·유정(사명 대사) 등	승려들이 군대를 조직하여 항전에 참여함

설명 의병은 낯선 곳에서 온 일본군보다 지역의 산길과 지형을 잘 알았습니다. 이를 이용해 공격하거나 물자 수송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관군·의병·승군은 함께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유정(사명 대사)은 전쟁 뒤 포로 송환을 위한 교섭에도 참여했습니다(→ Q12).

★ **시험 포인트** '지역 지리·자발적 참여'는 의병, '승려의 참여'는 승군입니다.

Q07 조선은 어떤 전투에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나요?

한 줄 답 **수군은 한산도에서, 육지에서는 진주·평양성·행주에서 승리를 거두며 반격했습니다.**

낯선 말

대첩 크게 이긴 싸움.

해전 바다에서 벌어진 전투.

탈환 빼앗긴 곳을 다시 되찾음.

D07 장소·지휘관·시기를 함께 구별하기

전투	시기	중심 인물·세력	구별할 점
한산도 대첩	1592년	이순신	해전, 학익진 활용
진주 대첩	1592년	김시민	진주성을 지켜 낸 전투
평양성 탈환	1593년	조선·명 연합군(→ Q08)	일본군에게 빼앗긴 평양성을 되찾음
행주 대첩	1593년	권율	행주산성에서 거둔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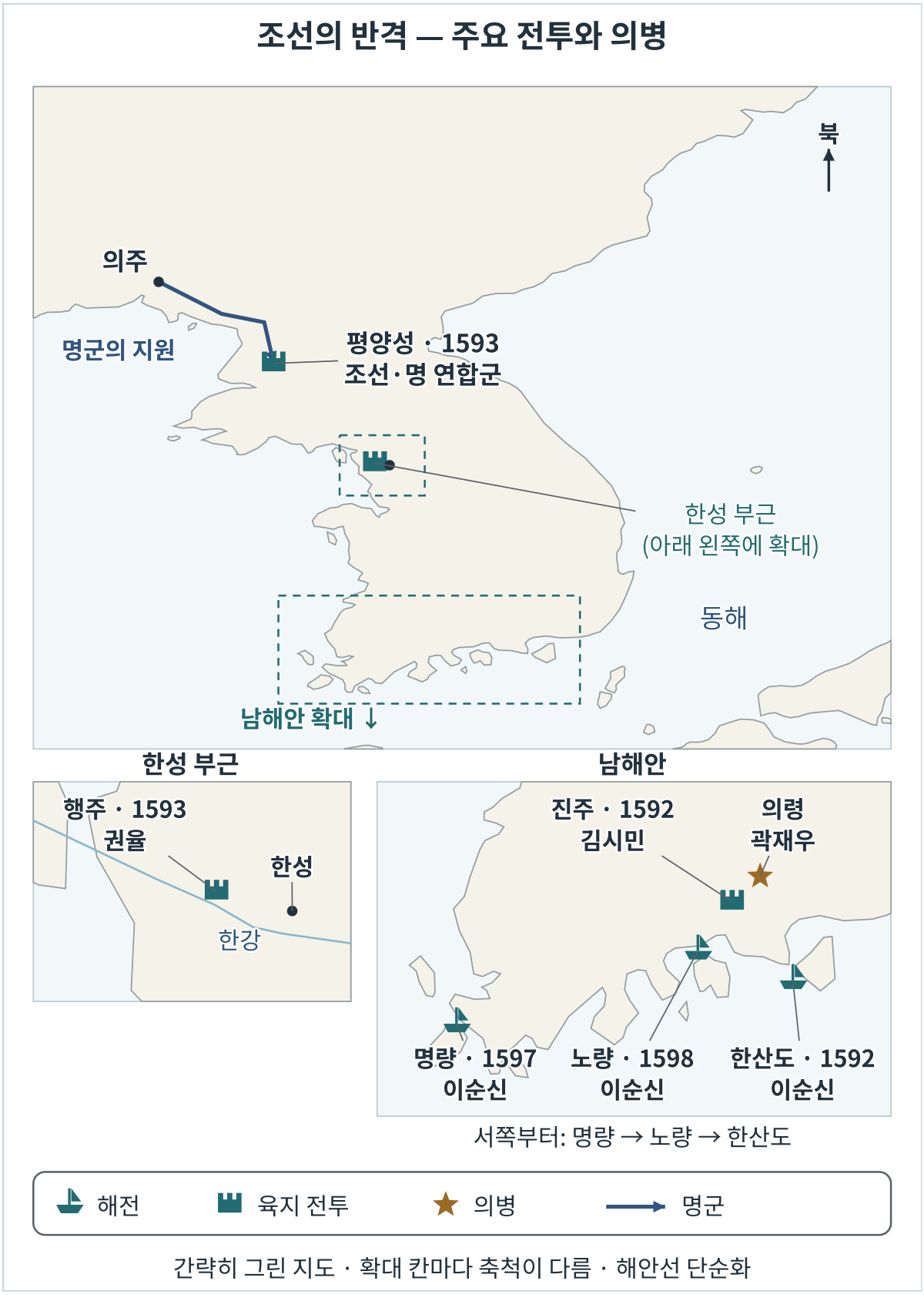


그림 5. 조선의 반격 — 주요 전투와 의병

배 기호는 해전, 성 기호는 육지 전투, 별 기호는 의병의 활동을 나타냅니다. 명량→노량→한산도를 서쪽부터 찾아보세요. 명군은 의주 쪽에서 들어와 조선군과 함께 평양성을 되찾았습니다. 한성 부근과 남해안의 가까운 지점은 확대 칸으로 구별했습니다.

설명 한산도·진주·행주 대첩을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세 전투를 모두 이순신의 해전이라고 외우면 장소와 인물을 묻는 문제에서 틀리기 쉽습니다. 진주 대첩은 1592년 김시민이 진주성을 지켜 낸 승리입니다. 전투의 앞뒤 순서는 Q09의 그림 6에서, 위치는 위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험 포인트** '한산도—이순신 / 진주—김시민 / 행주—권율'에 '바다 / 성 / 산성'을 붙여 구별합니다.

Q08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는데 명은 왜 군대를 보냈나요?

한 줄 답 **조선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고, 일본군이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지원군 다른 군대를 돕기 위해 보내는 군대.

연합군 둘 이상의 나라나 세력이 함께 싸우려고 힘을 합친 군대.

국제전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전쟁.

D08 세 나라가 참여한 전쟁

나라	전쟁에 참여한 이유와 위치
일본	조선을 침략하고 대륙으로 세력을 넓히려 함
조선	일본의 침략을 막고 영토를 되찾으려 함
명	조선을 지원하고 일본의 대륙 진출을 막으려 함

설명 명은 조선과 오랫동안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이 일본군에게 장악되면 명도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명 연합군은 평양성을 되찾았습니다. 따라서 임진왜란은 조선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면서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힌 전쟁이었습니다.

★ **시험 포인트** 임진왜란 때 조선에 온 '명의 지원군'과 광해군 때 명을 돕기 위해 나간 '강홍립의 군대'는 이동 방향과 시기가 다릅니다.

Q09 물러가던 일본군은 왜 다시 쳐들어왔나요?

한 줄 답 명과 일본 사이의 휴전 협상이 결렬되자 일본이 1597년 다시 침략했습니다.

낯선 말

휴전 협상 싸움을 멈출 조건을 의논하는 일.

결렬 의견이 맞지 않아 협상이 깨짐.

철수 군대가 있던 곳에서 물러남.

D09 처음 침략부터 전쟁의 끝까지

시기	사건	연결할 의미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일본의 첫 침략과 조선의 저항
1593년 이후	명·일본의 휴전 협상	협상이 이어졌으나 끝내 결렬됨
1597년	정유재란, 명량 해전	일본의 재침략, 이순신의 승리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일본군 철수, 노량 해전	전쟁이 끝남, 이순신이 노량에서 전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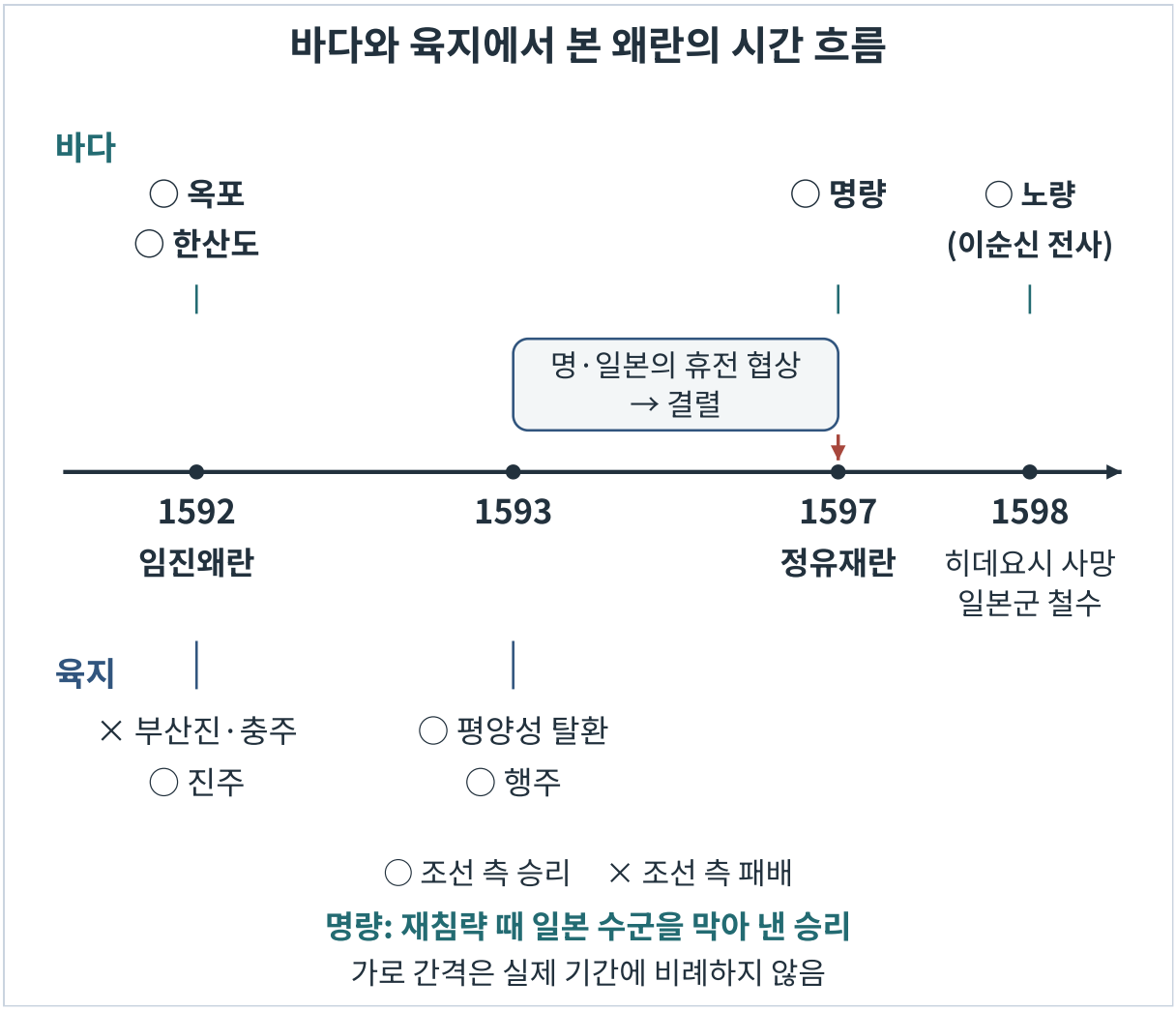


그림 6. 바다와 육지에서 본 왜란의 시간 흐름

가운데 시간축을 따라 위쪽의 해전과 아래쪽의 육지 전투를 함께 읽습니다. 명량은 재침략 때 일본 수군을 막아 낸 승리이고, 노량은 철수 과정의 전투입니다. 시간 간격은 실제 기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설명 평양성과 행주에서 밀린 일본군은 남쪽으로 물러났고, 명과 일본 사이에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은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와 성곽을 보강했습니다. 일본은 1597년 다시 침략했고, 이순신은 명량 해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듬해 일본군이 철수하던 중 조선·명 수군은 노량에서 일본군과 싸웠으며 이순신이 전사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말을 넓게 쓸 때에는 정유재란을 포함한 1592~1598년의 전쟁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 **시험 포인트** ‘명량=1597년 재침략 시기의 승리’, ‘노량=1598년 철수 과정·이순신 전사’입니다.

2 왜란이 남긴 변화

Q10 전쟁이 끝나면 백성의 생활도 바로 회복되나요?

한 줄 답 **아닙니다. 사람이 줄고 농토와 집이 파괴되었으므로 생산과 생활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낯선 말

황폐화 땅이나 마을이 망가져 제 기능을 하기 어렵게 됨.

국가 재정 나라가 거두고 쓰는 돈과 물자.

포로 전쟁에서 적에게 붙잡힌 사람.

사고 실록 등 중요한 역사 기록을 보관하던 곳.

신분 질서의 동요 신분에 따른 구분과 지배가 이전처럼 유지되기 어려워짐.

노비 문서 노비의 신분이나 소유 관계 등을 기록한 문서.

호적 집집마다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기록한 문서.

D10 조선의 피해를 생활·재정·문화로 연결하기

나타난 일	이어진 어려움
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감	인구와 일할 사람이 줄어듦
농토가 황폐해지고 생산이 줄어듦	백성의 생활과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짐
궁궐·사고가 불타고 문화유산이 약탈됨	건물·서적·기술 등 문화의 손실이 커짐
노비 문서와 호적의 소실, 지배층의 권위 약화	신분 질서가 흔들림



그림 7. 전쟁 뒤 마을의 복구

전쟁 뒤 사람들이 밭과 집을 다시 정비하는 모습을 그린 상상도입니다. 특정 마을이나 실제 인물을 재현한 그림은 아닙니다.

설명 농사를 지을 땅이 망가지고 일할 사람이 줄면 백성의 식량도, 나라가 거둘 세금도 부족해집니다. 전쟁의 피해는 전투가 끝난 날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비 문서와 호적이 없어지면 누가 어떤 신분인지 확인하고 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지배층에 대한 신뢰도 약해져 기존 신분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신분제가 법으로 모두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 **시험 포인트** '생산 감소 → 민생·재정의 어려움', '신분 질서 동요 ≠ 신분제 폐지'를 구별합니다.

Q11 왜란은 조선·일본·명을 각각 어떻게 바꾸었나요?

한 줄 답 **조선은 큰 피해를 입었고, 일본에는 에도 막부가 들어섰으며, 명은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낯선 말

막부	일본에서 무사 세력이 세운 군사 정권.
여진	당시 만주 등지에 살던 여러 집단으로, 이후 후금·청을 세운 세력의 바탕이 됨.

D11 왜란 이후 동아시아의 변화

나라·세력	주요 변화
조선	인구 감소, 농토 황폐화, 재정 악화, 문화유산 피해, 신분 질서 동요
일본	끌려간 조선의 학자·기술자 등을 통해 문화 발전의 계기를 얻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움
명	전쟁 지원의 부담 등으로 국력이 약해짐
여진	명이 약해지는 가운데 만주에서 성장함;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움

문화가 건너간 방향	내용과 경로
조선 → 일본	포로로 끌려간 학자·도자기 기술자·활자 인쇄공과 약탈된 문화유산을 통해 학문·기술이 전해짐
일본 → 조선	투항한 일본인을 통해 조총·화약 제조 기술이 전해지고, 일본에서 담배 같은 작물이 들어옴

설명 문화의 이동은 자발적인 교류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으므로 포로와 약탈의 피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명의 약화와 여진의 성장은 여러 원인이 얽힌 변화이며, 왜란은 그 배경의 하나였습니다.

★ **시험 포인트**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와 '어느 나라에 무엇이 전해졌는가'를 구별합니다. 명이 임진왜란이 끝난 즉시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Q12 침략을 겪었는데 왜 일본과 다시 교류했나요?

한 줄 답 **포로를 돌려받고 다시 전쟁이 나지 않도록 관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국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

송환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본래의 나라나 장소로 돌려보냄.

사절단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보내는 일행.

통신사 조선이 일본에 보낸 외교 사절단.

D12 전쟁 뒤 해결해야 할 과제

일본의 변화	조선의 대응	교류의 역할
에도 막부가 관계 정상화를 요청함	유정 등을 통한 교섭과 포로 송환, 국교 회복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통신사를 보내 외교 관계를 다지고 문화 교류를 이어 감

설명 전쟁으로 생긴 피해를 인정하는 일과 전쟁 뒤 외교를 하는 일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선은 끌려간 사람들을 데려오고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통신사는 나라를 대표하는 공식 사절단으로서 학문·예술의 교류에도 기여했습니다.

★ **시험 포인트** '도쿠가와 이에야스—에도 막부', '유정—포로 송환', '통신사—외교·문화 교류'를 연결합니다.

3 광해군의 외교에서 정묘호란까지

Q13 광해군은 왜 토지 대장과 호적부터 정비했나요?

한 줄 답 **전쟁 뒤 땅과 사람의 상황을 다시 파악하여 나라의 재정과 통치를 회복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토지 대장 토지의 위치·넓이·소유 관계 등을 기록한 문서.

전후 복구 전쟁 뒤 파괴된 시설과 생활·제도를 회복하는 일.

광해군 선조의 아들. 왜란 때 세자로서 전쟁 수습에 참여했고, 선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됨.

북인 앞 단원에서 배운 붕당 가운데 하나로, 광해군 때 정치를 주도한 세력.

D13 광해군의 복구 정책과 목적

정책	필요한 까닭
토지 대장·호적 정비	땅과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고 국가 재정 수입을 회복하려 함
성곽·무기 수리	국방력을 강화하고 다시 닥칠 위기에 대비하려 함

설명 전쟁으로 문서가 없어지거나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나면 정부는 어느 땅에서 농사를 짓는지, 누가 어디에 사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광해군은 북인과 함께 전후 복구에 힘썼습니다. 문서를 다시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니라 나라 운영의 기반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 시험 포인트 광해군은 외교 정책만 편 왕이 아닙니다. '전후 복구·국방 강화'와 '중립 외교'를 함께 연결합니다.

Q14 명에 군대를 보냈는데도 왜 '중립 외교'라고 하나요?

한 줄 답 **명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성장한 후금과 전면적으로 적대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후금 여진의 누르하치가 세운 나라.

중립 외교 이 단원에서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정세를 살피며 조선의 피해를 줄이려 한 외교.

실리 실제로 얻는 이익.

명분 어떤 행동이 옳다고 내세우는 이유나 원칙.

D14 광해군이 함께 고려한 두 조건

명과의 관계	후금과의 관계	조선의 처지
왜란 때 지원받았고 기존 외교 관계가 있었음	누르하치가 세운 후금이 강해져 명과 대립함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중이므로 새로운 전쟁을 피할 필요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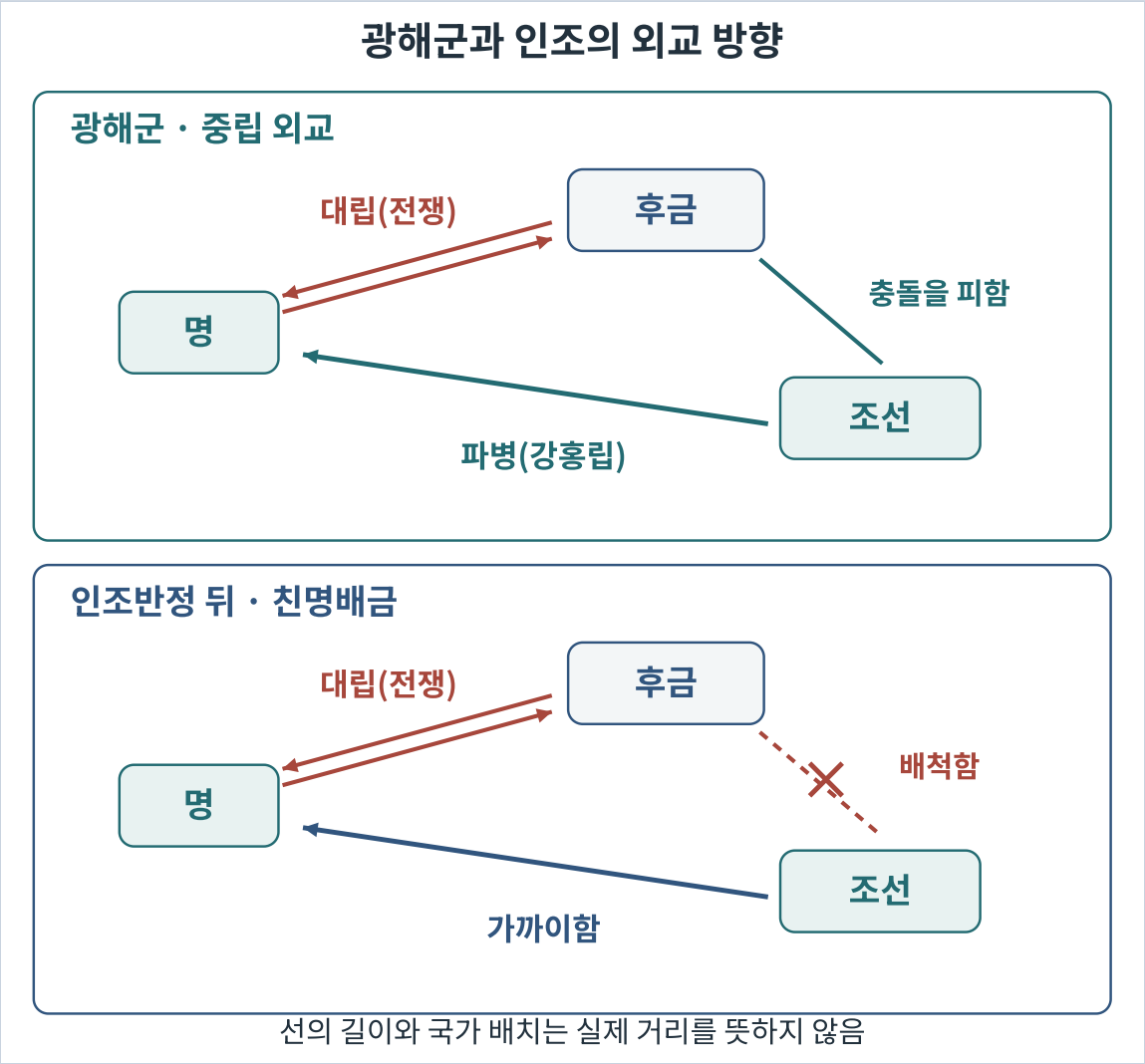


그림 8. 광해군과 인조의 외교 방향

명과 후금이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조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비교합니다. 광해군 때 명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파병, 후금과 잇는 선은 충돌을 피하려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선의 길이와 국가 배치는 실제 거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설명 명이 후금과 싸우기 위해 지원을 요청하자 광해군은 강홍립이 이끄는 군대를 보냈습니다. 광해군은 강홍립에게 상황을 보아 신중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명 연합군이 패하자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했습니다. 광해군은 명의 요구를 무조건 따르기보다 전쟁 상황과 조선의 군사력을 고려하며 후금과의 관계도 관리하려 했습니다. 명에 대한 의리라는 **명분**을 의식하면서도, 전쟁을 피하고 복구에 집중하려는 **실리**를 중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립 외교는 '군대를 한 명도 보내지 않음'이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 **시험 포인트** '명 약화·후금 성장·전후 복구'가 배경이고, '강홍립 파병'은 그 상황에서 나타난 행동입니다.

Q15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외교 정책도 왜 달라졌나요?

한 줄 답 **광해군을 몰아낸 서인이 명에 대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정변	정치 세력이 힘으로 정권을 바꾸는 일.
폐위	왕이나 왕비 등의 지위를 빼앗음.
반정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다고 내세워 임금을 바꾼 정변을 부르는 말.
친명배금	명을 가까이하고 후금을 배척한다는 뜻.
서인	앞 단원에서 배운 붕당 가운데 하나로, 인조반정을 주도한 세력.
인조	선조의 손자. 서인이 광해군을 몰아낸 뒤 왕으로 세운 인물.

D15 인조반정 전후의 정치와 외교

1623년 인조반정: 서인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움.

비교 기준	광해군·북인	인조·서인
외교 방향	중립 외교	친명배금
무엇을 앞세웠나	**실리**: 새로운 전쟁을 피하고 복구에 집중함	**명분**: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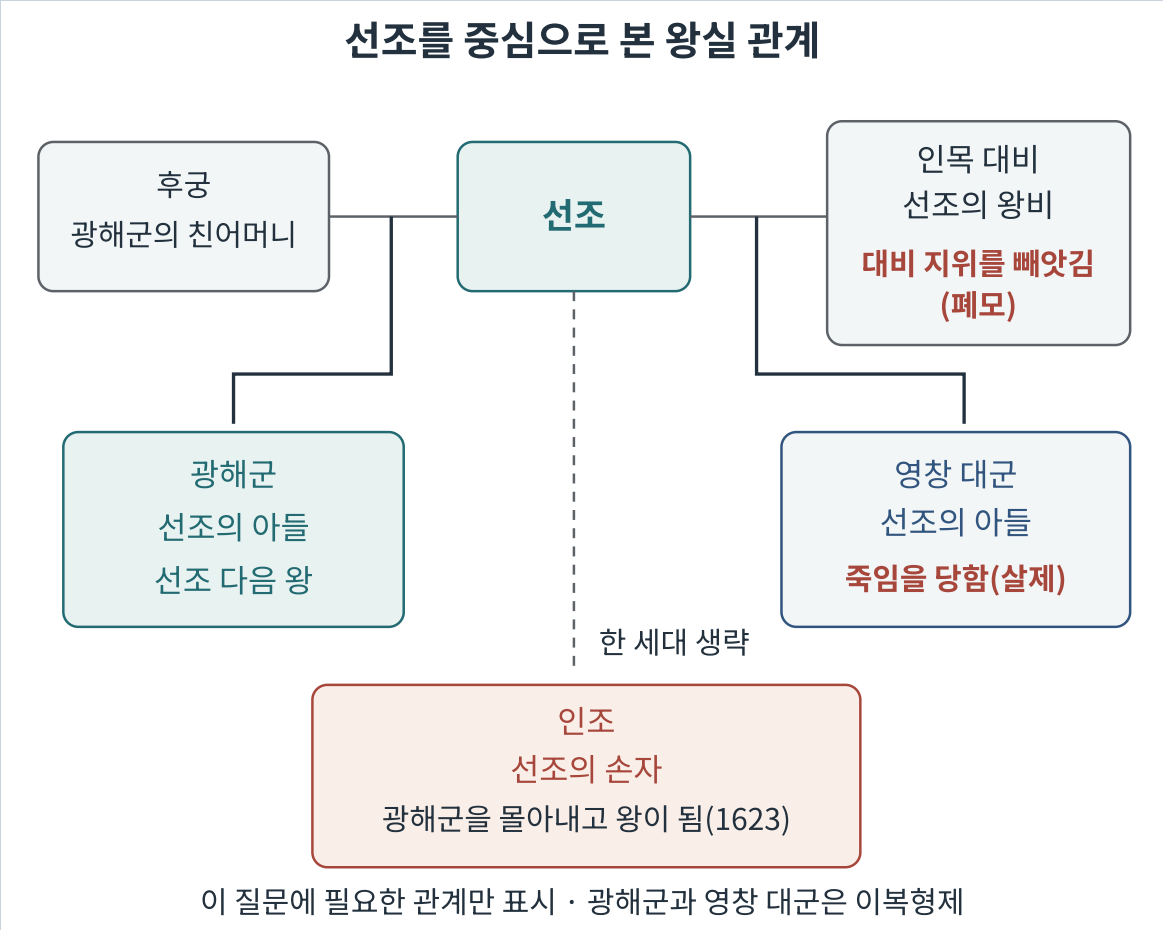


그림 9. 선조를 중심으로 본 왕실 관계

광해군과 영창 대군은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입니다. 인목 대비는 영창 대군의 친어머니이며 광해군의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인조는 선조의 손자입니다. 이 질문에 필요한 가족 관계만 표시했습니다.

설명 서인은 광해군의 외교가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영창 대군의 죽음과 인목 대비의 폐위를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내세워 일으킨 정변이 인조반정입니다. 영창 대군은 광해군의 이복동생이고, 인목 대비는 선조의 왕비이자 영창 대군의 어머니였습니다. 영창 대군은 왕비가 낳은 아들이어서, 후궁의 아들인 광해군에게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름 풀이 '폐모살제'는 어머니의 지위를 폐하고 아우를 죽였다는 뜻으로, 광해군 정권을 비판할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광해군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왕실에서 어머니 지위에 있던 인목 대비를 가리킵니다.

★ 시험 포인트 '광해군—북인—중립 외교 / 인조—서인—친명배금'을 연결합니다. 인조반정은 외국군의 침략이 아니라 국내 정변입니다.

Q16 명과 싸우던 후금은 왜 조선을 침략했나요?

한 줄 답 **명과 싸우는 동안 조선이 뒤에서 위협하는 것을 막고, 부족한 물자도 확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배후	뒤쪽. 여기서는 다른 적과 싸울 때 뒤에서 위협할 수 있는 방향.
항전	적에게 맞서 싸움.

D16 정묘호란의 배경과 전개

배경	→	전개	→	조선의 대응
인조 정권의 친명배금; 후금의 배후 안정·물자 확보 필요		후금이 조선을 침략함: 정묘호란, 1627년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함; 관군과 의병이 저항함

설명 후금의 입장에서는 명과 싸우는 중에 조선까지 적대하면 부담이 커졌습니다. 후금은 명과 대립하면서 명과의 교역이 끊겨 필요한 물자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정묘호란은 조선의 정책 변화와 후금의 대외 전략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시험 포인트** '1627·후금·인조의 강화도 피신'이 모이면 정묘호란입니다.

Q17 '형제 관계'를 맺었다면 후금과 갈등이 끝났나요?

한 줄 답 **당장의 전쟁은 끝났지만, 후금이 더 강해져 더 높은 지위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다시 커졌습니다.**

낯선 말

화의	싸움을 그치기 위해 합의함.
형제 관계	두 나라의 관계를 형과 아우에 빗댄 외교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와는 다름.
군신 관계	한쪽을 임금, 다른 쪽을 신하의 위치에 놓는 외교 관계.

D17 형제 관계에서 군신 관계 요구로

정묘호란 뒤	→	후금의 성장	→	새로운 요구
조선과 후금이 형제 관계를 맺고 후금군이 물러감		세력이 강해지고 지위에 대한 요구가 커짐		군신 관계를 맺고 더 많은 물자와 군사를 보내라고 요구함

설명 후금은 명과의 전쟁도 앞두고 있었으므로 조선과 화의하고 물러났습니다. 이후 더 강해진 후금은 기존 약속보다 조선을 더 낮은 위치에 두려고 했습니다. 형제 관계에도 위아래의 의미는 있었지만, 이를 군신 관계와 같은 말로 외우면 두 호란의 차이를 놓칩니다.

★ **시험 포인트** '정묘호란 뒤 형제 관계'는 한 시점의 결과입니다. 이후의 군신 관계 요구까지 해결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4 병자호란과 북벌론

Q18 척화론과 주화론은 무엇을 다르게 판단했나요?

한 줄 답 **후금·청의 요구에 맞서 싸울 것인지, 화의를 맺어 당장의 피해를 줄일 것인지 판단이 달랐습니다.**

낯선 말

후금·청	후금은 뒤에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꿈(→ Q19). 이 논쟁은 이름이 바뀌기 전후에 걸쳐 이어짐.
척화론	화의를 배척하고 후금·청에 맞서 싸우자는 주장.
주화론	화의를 맺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
의리	여기서는 명과 맺어 온 관계와 도움받은 은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D18 같은 위기, 다른 대응 방안

비교 기준	척화론	주화론
중시한 판단	**명분**: 명에 대한 의리, 후금·청에 굴복할 수 없다는 원칙	**실리**: 조선과 후금·청의 군사력 차이, 나라와 백성의 피해
제시한 방법	후금·청의 요구를 거부하고 항전함	화의로 위기를 넘기고 나라를 보전함
자료에서 찾을 단서	의리·명분·화의 거부	군사력·식량·피해·화의

설명 후금의 군신 관계 요구를 두고 시작된 논쟁은,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 안에서도 '끝까지 싸울 것인가, 화의할 것인가'로 이어졌습니다. 두 주장은 전쟁을 해결할 방법과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척화론을 단순히 무모한 주장으로, 주화론을 나라를 팔자는 주장으로만 보면 당시의 고민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제에서는 누가 더 착한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시험 포인트** '누가 말했는가'보다 '무슨 근거로 싸움 또는 화의를 주장하는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Q19 청은 왜 조선을 다시 침략했나요?

한 줄 답 **조선이 군신 관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꾼 후금이 1636년에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낯선 말

국호 나라의 이름.

포위 바깥과 오가기 어렵도록 둘러쌈.

D19 병자호란으로 이어진 과정

관계 변화	→	침략	→	조선의 대응
조선이 군신 관계 요구를 거부함(척화론 우세)	→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꾼 뒤 침략함: 병자호란, 1636년	→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히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함

설명 군신 관계 요구를 두고 척화론이 우세해지자 조선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사이에 침략국의 이름이 달라진 것은 두 나라가 전혀 별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장한 후금이 청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청군은 빠르게 진격해 인조가 강화도로 가려던 길을 막았습니다. 인조와 신하들은 남한산성에서 버텼지만 밖에서 지원받기 어려워졌습니다.

★ **시험 포인트** '후금→청'의 이어짐과 '강화도 피신→남한산성 항전'의 차이를 함께 봅니다.

Q20 남한산성에서 버티던 인조는 왜 결국 항복했나요?

한 줄 답 **청군의 포위 속에서 식량과 군사 지원이 부족해졌고, 강화도까지 함락되어 항전을 이어 가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남한산성 한성 남동쪽의 산성.

삼전도 한강 남쪽 가의 나루. 나루는 배가 닿아 사람이나 물자를 싣고 내리는 곳.

볼모 약속 이행이나 복종을 확보하려고 상대편에 잡아 두는 사람.

조공 외교 관계 속에서 상대 나라에 보내던 물품. 여기서는 청에 보내야 한 물품을 가리킴.

D20 병자호란의 결과

항복까지의 과정	항복 뒤의 변화
남한산성 포위, 구원병의 패배, 강화도 함락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함: 1637년
청의 요구를 받아들임	청과 군신 관계를 맺고 명과의 관계를 끊음
청에 대한 부담이 커짐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뒤의 효종)이 볼모로 끌려가고 많은 백성도 포로가 됨; 조공 부담을 짐

설명 병자호란은 1636년에 시작했지만 항복은 해를 넘긴 163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인조가 버틴 곳은 남한산성이고 항복한 곳은 삼전도입니다. 삼전도비는 이 항복 뒤 청의 요구로 세워진 비석이므로 조선의 승리를 기념한 비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 ★ **시험 포인트** '병자호란 발발 1636 / 삼전도 항복 1637', '남한산성=항전 / 삼전도=항복'을 구별합니다.

Q21 두 호란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나요?

> **한 줄 답** **두 전쟁 모두 인조 때 일어났지만, 정묘호란 뒤에는 후금과 형제 관계를, 병자호란 뒤에는 청과 군신 관계를 맺었습니다.**

D21 두 호란의 공통점과 차이

기준	정묘호란	병자호란
시작 연도	1627년	1636년
조선의 왕	인조	인조
침략국	후금	청
인조가 피신하여 머문 곳	강화도	남한산성
전쟁을 마친 방식과 관계	화의, 형제 관계	삼전도 항복, 군신 관계
뒤이어 연결할 내용	후금의 성장과 더 강한 요구	볼모·포로·조공 부담, 북벌론



그림 10.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진격·피신

정묘호란 때 후금군은 황해도까지 내려왔고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청군이 빨리 내려와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항전한 뒤 삼전도에서 항복했습니다. 침입군의 진격과 왕의 이동은 선 종류와 범례로 구별합니다.

설명 정묘호란에는 강화도가 인조의 피신처였지만, 병자호란에는 청군이 빠르게 내려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전쟁을 비교할 때에는 왕의 이름뿐 아니라 이동한 곳과 맺은 관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인조 때 북쪽에서 침략해 왔다'는 단서만으로는 두 전쟁 중 하나를 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단서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삼전도 항복'은 병자호란을 가리키는 강한 단서입니다. 자료에 나온 단서들이 한 전쟁에 함께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시험 포인트** 공통 단서와 구별 단서를 나눕니다. '인조'는 공통, '형제 관계·강화도'는 정묘, '청·삼전도·군신 관계'는 병자입니다.

Q22 북벌을 준비했다면 실제로 청을 공격한 건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효종은 북벌을 준비했지만 실제 북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낯선 말

북벌론	북쪽의 청을 공격하여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자는 주장.
치욕	크게 부끄럽고 모욕스럽게 여긴 일.

D22 주장·준비·실행은 서로 다른 단계

주장	준비	실제 결과
청에 대한 반감과 명에 대한 의리 등을 바탕으로 북벌론이 일어남 →	볼모로 청에 끌려갔던 봉림 대군이 돌아와 왕(효종)이 됨; 효종이 서인을 등용하고 성곽·무기를 정비하며 군대를 키움 →	강해진 청과 조선의 어려운 사정 속에 실행하지 못함; 효종이 죽은 뒤 추진이 중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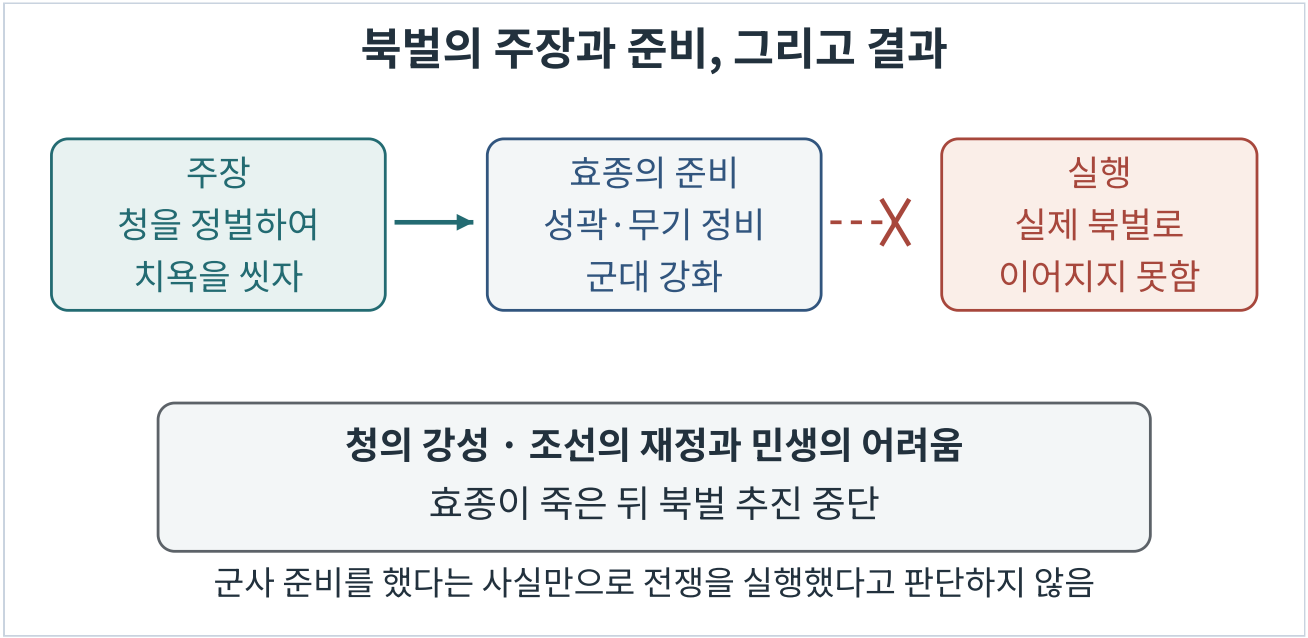


그림 11. 북벌의 준비와 실행 여부

군사 준비를 했다는 사실과 전쟁을 실제로 시작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북벌은 준비 단계에서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설명 조선은 흉년과 재정 부족 등으로 백성의 생활이 어려웠고, 청은 중국 대륙을 장악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북벌의 실현을 어렵게 했습니다. 한편 청과의 교류가 늘면서 청의 발달한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북벌론은 청에 당한 치욕을 씻자는 **명분**, 문물 수용은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자는 **실리**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청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교류가 끊겼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시험 포인트** '효종—북벌 준비—실행하지 못함'을 함께 기억합니다. '준비했다'를 '청을 정복했다'로 바꾼 선지는 틀립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D23 왕·사건·결과를 함께 묶기

왕	중심 사건	함께 붙일 내용	섞으면 안 되는 것
선조	임진왜란·정유재란	의주 피란, 수군·의병·관군의 항전, 명의 참전	남한산성 항전은 인조
광해군	전후 복구·중립 외교	북인, 토지 대장·호적 정비, 강홍립 파병	명에 군대를 전혀 보내지 않았다는 설명
인조	인조반정 뒤 두 차례 호란	서인, 친명배금, 정묘=형제·병자=군신	두 전쟁을 모두 청의 침략이라고 쓰는 것
효종	북벌 준비	성곽·무기 정비, 군대 강화, 실현되지 못함	북벌에 성공하여 청을 정복했다는 설명

헷갈리는 두 표현	구별 기준
수군의 보급로 차단 / 의병의 보급로 차단	수군은 바닷길, 의병은 익숙한 지역 지리를 활용한 공격
한산도 / 명량 / 노량	1592 학익진 / 1597 정유재란 / 1598 철수 과정·전사
도요토미 히데요시 / 도쿠가와 이에야스	침략을 일으킴 / 전쟁 뒤 에도 막부를 세움
강화도 / 남한산성 / 삼전도	정묘호란 때 인조 피신 / 병자호란 때 항전 / 병자호란 뒤 항복
척화론 / 주화론 / 북벌론	화의 거부·항전 / 화의로 위기 해결 / 호란 뒤 청 정벌 주장

확인 문제

선택형은 가장 알맞은 답 하나를 고르세요. OX·빈칸·짧은 서술형은 각 문항의 지시에 따라 답하세요.

01 원인 구별

다음은 임진왜란을 정리한 두 메모이다. 두 메모가 각각 답하는 질문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일본을 통일한 지배자가 국내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대륙까지 세력을 넓히려 했다.
- (나) 조선의 군역 제도가 문란해졌고 적의 빠른 진격에 맞설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

선택지	(가)가 답하는 질문	(나)가 답하는 질문
①	명이 참전한 이유	일본군이 철수한 이유
②	조선이 초기에 밀린 이유	일본이 침략한 이유
③	일본이 침략한 이유	조선이 초기에 밀린 이유
④	조선이 초기에 밀린 이유	명이 참전한 이유
⑤	일본군이 철수한 이유	일본이 침략한 이유

02 시간 순서

다음 사건을 이른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명·일본의 휴전 협상이 결렬되어 일본이 다시 침략하였다.

ㄴ. 부산진과 동래성이 일본군에게 함락되었다.

ㄷ. 철수하던 일본군과 노량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① ㄴ → ㄱ → ㄷ

② ㄴ → ㄷ → ㄱ

③ ㄱ → ㄴ → ㄷ

④ ㄱ → ㄷ → ㄴ

⑤ ㄷ → ㄴ → ㄱ

03 인과 관계

다음 설명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일본군이 육지에서 진격하더라도 식량과 무기를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작전에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조선 수군이 바다에서 승리한 것은 (　　).

① 조선의 신분제를 법적으로 폐지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② 일본군의 육상 부대가 즉시 모두 항복했다는 뜻이다.
③ 명이 조선에 군대를 보낼 필요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다.
④ 조선의 곡창 지대를 일본군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낳았다.
⑤ 일본군의 해상 물자 운송에 타격을 주어 육지의 전쟁에도 영향을 주었다.

04 인물·전투 연결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전투와 지휘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1592년, 학익진을 활용하여 바다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 (나) 1593년,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선택지	(가)	(나)
①	진주 대첩·김시민	행주 대첩·권율
②	한산도 대첩·이순신	행주 대첩·권율
③	한산도 대첩·이순신	진주 대첩·김시민
④	명량 해전·이순신	행주 대첩·권율
⑤	한산도 대첩·권율	행주 대첩·이순신

05 여러 진술 판단

왜란 당시의 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ㄱ. 의병은 국가의 정규군에 속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다.
ㄴ. 의병은 익숙한 지역 지리를 이용하여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ㄷ. 휴정과 유정 등 승려들도 군대를 조직하여 싸웠다.
ㄹ. 관군과 의병은 서로 협력한 적이 전혀 없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⑤ ㄷ, ㄹ

06 OX

옳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ㄱ. 한성이 함락된 뒤에도 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저항이 계속되었다. ( )

ㄴ. 판옥선은 조선 수군이 주력으로 사용한 전선이었다. ( )

ㄷ. 명량 해전은 이순신이 전사한 마지막 전투였다. ( )

ㄹ. 정유재란은 명·일본의 협상이 결렬된 뒤 일어났다. ( )

확인 07~08의 공통 자료

> 한 학생이 전투 자료를 정리하였다. “일본군에게 빼앗긴 성을 조선과 다른 나라의 군대가 함께 되찾았다. 이 승리는 1593년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승리하였다.”

07 자료로 사건 찾기

자료의 ‘성을 되찾았다’에 해당하는 사건은?

① 진주 대첩

② 평양성 전투

③ 명량 해전

④ 충주 전투

⑤ 노량 해전

08 참여 목적 판단

공통 자료에서 조선과 함께 싸운 나라가 참전한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선에 군신 관계를 요구한 청을 돕기 위해서였다.

② 조선의 의병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였다.

③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다.

④ 조선의 요청에 응하고 일본의 대륙 진출을 막기 위해서였다.

⑤ 정묘호란 뒤 맺은 형제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서였다.

09 전쟁의 영향

왜란 뒤 조선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농토의 황폐화와 인구 감소로 백성의 생활과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다.

② 신분 문서가 일부 소실되자 정부가 모든 신분 구분을 법으로 폐지하였다.

③ 일본군이 철수하자 파괴된 농토와 궁궐이 곧바로 복구되었다.

④ 명에 파견된 통신사가 포로 송환을 전담하였다.

⑤ 노비 문서와 호적이 불타 없어져 신분 질서가 전보다 더 굳어졌다.

10 연결 오류 찾기

왜란 이후의 변화를 정리한 표에서 수정해야 할 행은?

선택지	지역·나라	변화
①	조선	신분 질서가 흔들렸다.
②	일본	끌려간 조선의 기술자들이 문화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③	명	전쟁 지원의 부담 등으로 국력이 약해졌다.
④	만주	여진이 성장하고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웠다.
⑤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에도 막부를 세웠다.

11 외교 목적

조선이 왜란 뒤 일본과 교섭하고 통신사를 보낸 일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① 명을 공격하는 데 일본군과 협력하려 한 것이다.
② 전쟁 중의 포로와 약탈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③ 포로 송환과 관계 안정을 추진하고 외교·문화 교류를 이어 간 것이다.
④ 청에 대한 북벌을 이미 완수했기 때문에 남은 군대를 보낸 것이다.
⑤ 명과 후금의 전쟁에서 명을 돕기 위한 군사 파견이었다.

12 빈칸

전투 이름을 쓰세요.

이순신은 1597년 정유재란 때 (㉠)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1598년 일본군의 철수 과정에서 벌어진 (㉡) 해전에서는 전사하였다.

13 정책과 목적

광해군의 전후 복구 정책과 목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호적 정비 — 토지의 위치와 넓이를 조사하려 함
② 성곽 수리 — 가구별 가족 구성원을 파악하려 함
③ 무기 정비 — 농토의 소유 관계를 기록하려 함
④ 토지 대장 정비 — 땅의 상황을 파악하고 국가 재정 수입을 회복하려 함
⑤ 호적 정비 — 성의 방어 시설을 튼튼하게 하려 함

14 정책의 의미

다음 행동을 근거로 광해군의 외교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명의 요청으로 강홍립이 이끄는 군대를 보냈다. 그러나 후금의 군사력을 고려하면서 명의 요구에 신중하게 대응하였다.

① 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② 명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후금과의 충돌도 줄이려 했다.
③ 명과의 모든 외교 관계를 즉시 끊으려 했다.
④ 청과 이미 맺은 군신 관계를 이행하려 했다.
⑤ 어느 나라에도 군대를 보내지 않는 원칙을 끝까지 지켰다.

15 정변 전후 비교

다음 두 시기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 (가) 광해군이 북인과 함께 정치를 이끌던 시기
- (나) 서인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운 뒤의 시기

① (가)는 중립 외교, (나)는 친명배금 정책과 연결된다.
② (가)는 후금과의 형제 관계, (나)는 한산도 대첩과 연결된다.
③ (가)는 효종의 북벌 준비, (나)는 선조의 의주 피란과 연결된다.
④ (가)와 (나)는 모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집권 이전이다.
⑤ (가)에서 (나)로 바뀐 사건은 외국군이 왕을 임명한 일이었다.

16 침략 배경

정묘호란 직전 후금의 입장에서 조선을 침략하려 한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임진왜란 때 조선에 보낸 지원군을 철수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② 조선의 요청에 응하여 일본의 대륙 진출을 막으려 했기 때문이다.
③ 명을 공격할 길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조선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④ 조선의 왕을 선조에서 광해군으로 바꾸려 했기 때문이다.
⑤ 명과 싸우는 동안 조선 쪽의 위협을 줄이고 물자도 확보하려 했기 때문이다.

17 OX

옳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ㄱ.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모두 인조 때 일어났다. ( )
ㄴ. 정묘호란이 끝난 뒤 조선은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었다. ( )
ㄷ. 병자호란 때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여 끝까지 버텼다. ( )
ㄹ. 병자호란의 시작과 삼전도 항복은 모두 1636년에 일어났다. ( )

18 짧은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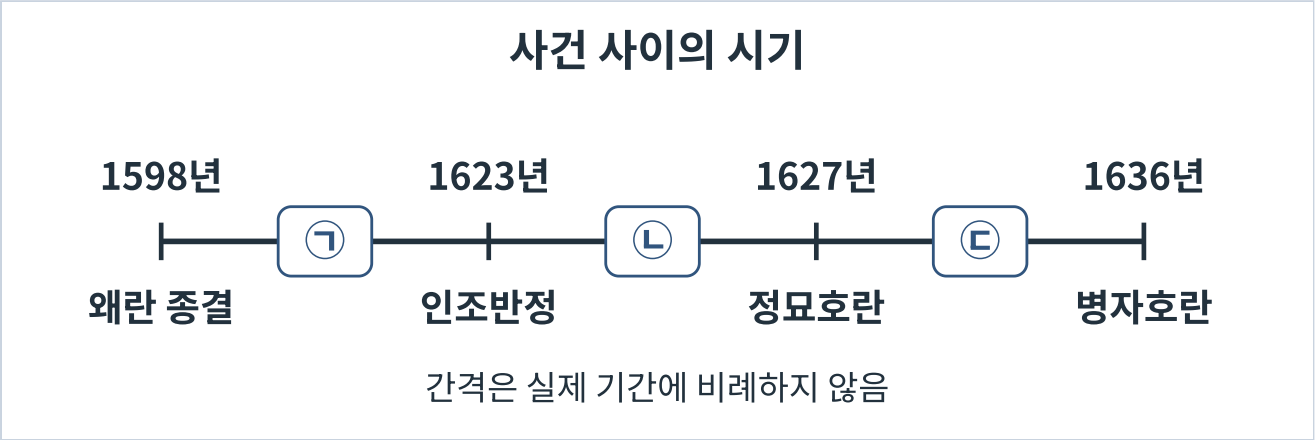
다음 설명에서 ㉠이 ㉡에 영향을 준 이유를 '물자'와 '보급'이라는 말을 모두 넣어 한 문장으로 쓰세요.

㉠ 조선 수군이 일본 함대의 해상 활동에 타격을 주었다.

㉡ 육지에서 싸우는 일본군도 전쟁을 이어 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답: _____

확인 19~20의 공통 자료



확인 자료 P01. 사건 사이의 시기

자료 설명: ㉠은 왜란 종결과 인조반정 사이, ㉡은 인조반정과 정묘호란 사이, ㉢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사이를 가리킵니다. 간격의 길이는 실제 기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19 연표 속 사건

㉠ 시기에 일어난 일은?

① 청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하였다.

② 후금과 조선이 형제 관계를 맺었다.

③ 광해군이 명의 요청으로 강홍립의 군대를 파견하였다.

④ 효종이 청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 준비를 추진하였다.

⑤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에 항복하였다.

20 관계 변화

㉢ 시기에 나타난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조선이 처음으로 한산도에서 일본 수군을 물리쳤다.

② 후금이 조선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③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 전후 복구를 시작하였다.

④ 일본군이 노량에서 싸운 뒤 조선에서 철수하였다.

⑤ 효종이 서인을 등용하여 청을 공격할 군사 준비를 추진하였다.

21 주장 판별

병자호란을 둘러싼 두 입장을 새로 구성한 가상 발언이다.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명과 맺어 온 의리를 생각하면 청의 요구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싸울 뜻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나) “현재의 군사력과 남은 식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의로 전쟁의 피해를 줄일 길을 찾아야 합니다.”

① (가)는 주화론이며, 청과의 화의를 먼저 요구한다.
② (나)는 척화론이며, 명분을 위해 화의를 거부한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이미 시작한 북벌의 전투 방법을 논의한다.
④ (가)는 의리와 명분, (나)는 군사적 현실과 피해 감소를 중시한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조선의 피해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

22 준비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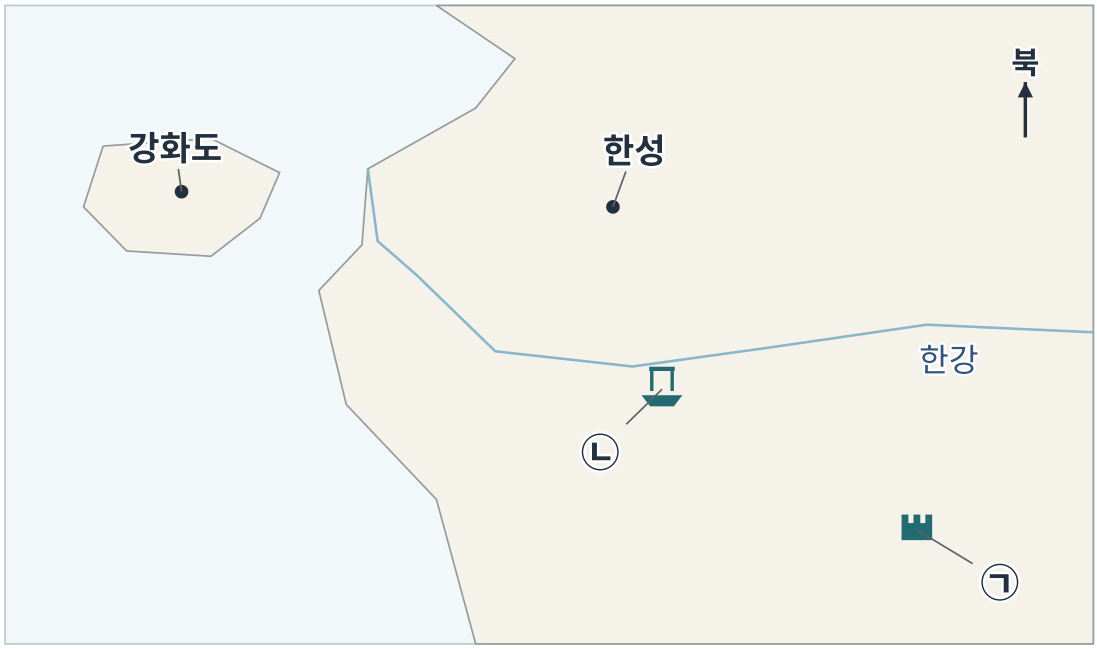
다음 기록을 읽고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옳은 것은?

> 효종은 성곽과 무기를 정비하고 군대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청의 세력이 강했고 조선의 재정과 백성의 생활도 어려웠다. 효종이 죽은 뒤 북벌 추진은 중단되었다.

① 북벌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북벌은 실행되지 못했다.
② 군대를 강화한 기록이 있으므로 청의 수도까지 점령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북벌이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군사 준비도 전혀 없었다.
④ 청과의 모든 교류가 영구히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인조가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은 것은 효종의 북벌 준비가 거둔 성과이다.

23 지도로 장소 찾기

한성 부근의 두 장소



산성 나루 강

간략히 그린 지도 · 축척을 따르지 않음 · 장소의 상대 위치와 기호를 보기

확인 자료 P02. 한성 부근의 두 장소

(1) 지도의 ㉠, ㉡은 각각 어디인지 이름을 쓰세요.

㉠: _____ / ㉡: _____

(2)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군에 맞서 버틴 곳과 항복한 곳의 기호를 차례로 쓰세요.

버틴 곳 ( ) → 항복한 곳 ( )

24 짧은 비교 서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침략국’과 ‘전쟁 뒤 맺은 관계’** 두 기준으로 비교하여 쓰세요.

정묘호란: _____

병자호란: _____

정답과 해설

확인 01 ③

판단 근거 (가)는 침략한 일본의 목적이고, (나)는 공격받은 조선이 초기에 밀린 배경입니다.

① 명의 참전과 일본군 철수의 이유를 설명한 자료가 아닙니다.
② 두 메모가 답하는 질문을 서로 바꾸었습니다.
③ 침략 목적과 초기 방어의 어려움을 바르게 구별했습니다.
④ (가)는 일본의 침략 목적이며, (나)는 명의 참전 이유가 아닙니다.
⑤ (가)는 일본군의 철수 이유가 아니며, (나)도 일본이 전쟁을 시작한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1~Q02.

확인 02 ①

판단 근거 ㄴ은 1592년의 첫 침략, ㄱ은 1597년 정유재란, ㄷ은 1598년 노량 해전입니다.

① 1592 → 1597 → 1598 순서입니다.
② 노량 해전을 정유재란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③·④ 재침략을 첫 침략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⑤ 전쟁 마지막 무렵의 노량 해전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2·Q09.

확인 03 ⑤

판단 근거 전쟁을 계속하려면 식량과 무기를 보급받아야 하므로 해상 수송의 어려움은 육상 군대에도 영향을 줍니다.

① 왜란 뒤 신분 질서는 흔들렸지만 신분제가 모두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② 바다에서 패했다고 일본의 육상 군대가 즉시 모두 항복한 것은 아닙니다.
③ 수군의 승리와 명의 지원군 참전은 함께 전세 변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④ 수군은 조선의 곡창 지대를 지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⑤ 바다의 활동과 육지의 보급을 바르게 연결했습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4.

확인 04 ②

판단 근거 '1592·학익진·해전'은 한산도 대첩, '1593·행주산성'은 권율의 행주 대첩입니다.

① 진주 대첩은 김시민이 성을 지켜 낸 육상 전투입니다.
② 두 전투와 지휘관이 모두 맞습니다.
③ 진주 대첩은 1592년이며 장소도 행주산성이 아닙니다.
④ 명량 해전은 1597년 정유재란 때입니다.
⑤ 두 지휘관을 서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5·Q07.

확인 05 ④

각 진술 판단 ㄱ X / ㄴ O / ㄷ O / ㄹ X.

ㄱ: 의병에는 농민·유생 등 여러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ㄴ: 지역 지리에 밝다는 점을 전투와 보급로 공격에 활용했습니다.
ㄷ: 휴정·유정 등은 승군을 조직했습니다.
ㄹ: 관군과 의병은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①·②는 틀린 ㄱ을, ③·⑤는 틀린 ㄹ을 포함합니다. 옳은 ㄴ·ㄷ만 고른 ④가 정답입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6.

확인 06 ㄱ O / ㄴ O / ㄷ X / ㄹ O

ㄱ: 수도 밖의 수군·의병·관군이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ㄴ: 판옥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 전선이었습니다.
ㄷ: 이순신이 전사한 마지막 전투는 1598년 노량 해전입니다. 명량은 1597년입니다.
ㄹ: 명·일본의 협상 결렬 뒤 정유재란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3·Q05·Q09.

확인 07 ②

판단 근거 '1593년·조선과 다른 나라의 연합·빼앗긴 성을 되찾음'이 평양성 탈환을 가리킵니다.

① 진주 대첩은 1592년 김시민의 방어전입니다.
② 명의 지원군과 조선군이 함께 평양성을 되찾았습니다.
③ 명량 해전은 1597년의 해전입니다.
④ 충주 전투 패배는 1592년 초기의 상황이며 성을 되찾은 승리가 아닙니다.
⑤ 노량 해전은 1598년입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7~Q08.

확인 08 ④

판단 근거 공통 자료의 다른 나라는 명입니다. 조선을 지원하는 일은 일본의 대륙 진출을 막는 일과도 연결되었습니다.

① 이때 조선을 지원한 나라는 명입니다. 청의 군신 관계 요구는 뒤 시기입니다.
② 조선의 저항을 돕기 위해 참전했으며 의병을 중단시키려 한 것이 아닙니다.
③ 에도 막부는 왜란 뒤에 세워졌습니다.
④ 조선의 요청과 명의 군사적 이해관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⑤ 정묘호란 뒤의 형제 관계는 조선과 후금 사이의 관계입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8.

확인 09 ①

판단 근거 농토와 인구의 피해는 생산 감소, 백성의 생활 악화, 국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① 피해와 결과가 바르게 연결됩니다.
② 신분 질서의 동요를 신분제의 전면 폐지로 확대했습니다.
③ 전쟁 뒤 복구에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④ 통신사는 일본에 보낸 사절단입니다. 포로 송환만 전담한 모임도 아닙니다.
⑤ 문서가 없어지면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통제하기 어려워져 신분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결과를 반대로 썼습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0~Q12.

확인 10 ⑤

판단 근거 에도 막부를 세운 인물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일으켰습니다.

① 조선에서는 기존 신분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② 일본에 끌려간 기술자·학자들은 일본 문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③ 명은 전쟁 지원 등으로 큰 부담을 졌습니다.
④ 여진은 만주에서 성장했고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웠습니다.
⑤ 인물을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고쳐야 합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1.

확인 11 ③

판단 근거 전쟁 뒤 외교는 포로 귀환과 관계 안정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었습니다.

① 조선이 일본의 대륙 침략에 협력하려 한 일이 아닙니다.

② 국교를 회복해도 전쟁의 피해가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③ 전후 과제와 사절단의 역할을 바르게 설명했습니다.

④ 북벌은 더 뒤에 추진되었으며 완수되지 않았습니다.

⑤ 광해군 때 명을 돕기 위해 강홍립의 군대를 보낸 일과 혼동했습니다. 통신사는 일본에 보낸 외교 사절단입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2.

확인 12 ㉠ 명량 / ㉡ 노량

명량은 1597년 정유재란 때 거둔 승리입니다. 노량은 1598년 철수 과정의 전투이며 이순신이 전사한 곳입니다. '명량 해전·노량 해전'처럼 전체 이름을 써도 정답입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9.

확인 13 ④

판단 근거 토지 대장은 땅의 상황을 기록한 문서로, 국가 재정 수입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① 토지의 위치·넓이는 토지 대장으로 파악합니다. 호적은 가구와 사람에 관한 문서입니다.

② 가족 구성원의 파악은 호적 정비와 연결됩니다. 성곽 수리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농토의 소유 관계는 토지 대장에 기록합니다. 무기 정비는 군사적 대비입니다.

④ 정책과 목적이 일치합니다.

⑤ 방어 시설을 튼튼하게 하는 일은 성곽 수리입니다. 호적 정비의 목적과 바꾸었습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3.

확인 14 ②

판단 근거 명을 돕는 행동과 후금을 경계하며 충돌을 줄이려는 판단이 함께 나타납니다.

① 자료에서 후금의 군사력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② 명·후금 사이에서 조선의 피해를 줄이려는 중립 외교의 방향입니다.

③ 명의 요청으로 파병했으므로 명과 모든 관계를 즉시 끊었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④ 청과의 군신 관계는 병자호란 뒤에 맺었습니다.

⑤ 자료에 군대를 보냈다는 행동이 분명히 나옵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4.

확인 15 ①

판단 근거 인조반정 전후로 왕과 집권 세력, 외교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① 광해군의 중립 외교와 인조 정권의 친명배금이 바르게 연결됩니다.

② 형제 관계는 인조 때이고 한산도 대첩은 선조 때입니다.

③ 효종은 인조의 뒤이며, 선조는 광해군의 앞입니다.

④ 두 시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왜란 이후입니다.

⑤ 서인이 주도한 국내 정변입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5.

확인 16 ⑤

판단 근거 후금은 명과의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 배후를 안정시키고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① 임진왜란 때 조선에 지원군을 보낸 나라는 명입니다.

② 임진왜란 때 명이 조선에 지원군을 보낸 목적입니다.

③ 임진왜란 때 일본이 내세운 침략 구실과 혼동했습니다.

④ 정묘호란 때 조선의 왕은 인조입니다.

⑤ 후금의 대외 전략과 물자 사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6.

확인 17 ㄱ O / ㄴ O / ㄷ X / ㄹ X

ㄱ: 두 차례 호란은 모두 인조 때입니다.

ㄴ: 정묘호란 뒤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ㄷ: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혀 남한산성에 들어갔습니다.

ㄹ: 병자호란은 1636년에 시작했지만 삼전도 항복은 1637년입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6~Q21.

확인 18 모범 답안

조선 수군이 일본군의 해상 보급을 어렵게 하여 육지의 일본군도 식량과 무기 같은 물자를 공급받는 데 지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① 수군이 일본군의 해상 보급을 어렵게 했다는 원인, ② 육상 군대의 물자 공급에 지장이 생겼다는 결과를 모두 쓰면 정답입니다. 표현은 달라도 됩니다. '바다에서 이겼기 때문'만 쓰면 보급과 물자의 연결이 빠집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4.

확인 19 ③

판단 근거 ㉠은 1598년 왜란 종결 뒤부터 1623년 인조반정 전까지입니다. 광해군의 강홍립 파병은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① 남한산성 포위는 1636년 병자호란 때입니다.
② 형제 관계를 맺은 것은 1627년 정묘호란의 결과입니다.
③ 광해군의 대외 정책에 해당하며 ㉠에 들어갑니다.
④ 효종의 북벌 준비는 병자호란 이후입니다.
⑤ 삼전도 항복은 1637년입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4~Q15.

확인 20 ②

판단 근거 ㉡은 정묘호란이 끝난 뒤 병자호란이 시작하기 전입니다. 형제 관계보다 더 강한 군신 관계 요구가 갈등을 키웠습니다.

① 한산도 대첩은 1592년입니다.
② 후금의 성장과 새로운 요구를 바르게 연결했습니다.
③ 광해군의 즉위와 복구 정책은 인조반정 전입니다.
④ 노량 해전과 일본군 철수는 1598년입니다.
⑤ 효종의 북벌 준비는 병자호란 이후의 일이므로 ㉡ 구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7~Q19.

확인 21 ④

판단 근거 (가)는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는 척화론, (나)는 현실적 어려움을 근거로 화의를 주장하는 주화론입니다.

① (가)는 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싸우자고 합니다.
② (나)는 화의를 통해 피해를 줄이자고 합니다.
③ 당면한 병자호란에 대한 대응이며 효종 때 북벌의 전투 방법이 아닙니다.
④ 두 발언이 내세우는 근거를 정확히 구별했습니다.
⑤ 두 입장은 피해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는 피해를 줄이는 것을 중시합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8.

확인 22 ①

판단 근거 군사 준비의 기록과 실행하지 못한 결과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① 준비와 실제 실행 여부를 구별한 결론입니다.

② 군대 강화가 청의 수도 점령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실제 북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③ 자료에 성곽·무기·군대의 준비가 나와 있습니다.

④ 북벌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모든 교류의 중단을 결론낼 수 없습니다. 청과의 교류는 이어졌습니다.

⑤ 후금과의 형제 관계는 1627년 인조 때 정묘호란의 결과입니다. 효종의 북벌 준비보다 앞선 일입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22.

확인 23 ㉠ 남한산성 / ㉡ 삼전도

(2)의 기호 순서는 ㉠ → ㉡입니다. 범례에서 ㉠은 산성 기호, ㉡은 나루 기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성 남동쪽의 산성인 ㉠은 남한산성, 한강 남쪽 가의 나루인 ㉡은 삼전도입니다. 남한산성은 인조가 청군에 맞서 버틴 장소, 삼전도는 항복한 장소입니다. '남한산'처럼 성의 이름을 불완전하게 쓰지 않고 남한산성으로 구별합니다. (1)의 두 장소 이름과 (2)의 기호 순서가 모두 맞으면 정답입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9~Q21.

확인 24 모범 답안

정묘호란: 후금이 침략하였으며, 전쟁 뒤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었다.

병자호란: 청이 침략하였으며, 전쟁 뒤 청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채점 기준 '정묘—후금—형제', '병자—청—군신'의 두 연결이 모두 맞으면 정답입니다. 연도·피신 장소·전쟁의 원인은 이 문항의 필수 채점 요소가 아닙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21.
